

# 연구 계획서

## <2010년도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소형과제)>

연구의제 (agenda)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				
연구규모	연구기간	3년	2010. 9. 1 ~ 2013. 8. 31.		
	신청 연구 비	소형 1차년도	97,017천원	참여인원 (연구보조원 제외)	총 5 명 (전임연구인력: 0 명)
		소형 2차년도	95,017천원		
		소형 3차년도	95,017천원		
		계	287,051천원		
연구과제	국 문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동아시아 세계정치			
	영 문	World Politics in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Network Theories			

### <목 차>

#### I. 연구계획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방법 및 내용

###### 가. 연구의 내용

- a. 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원용
- b. 네트워크 권력론의 동아시아 적용
- c. 네트워크 국가론의 동아시아 적용
- d. 네트워크 질서론의 동아시아 적용

###### 나. 1단계 세부 연구계획

- a. 1단계 연구의 방법과 분담
- b. 1년차 세부계획: 동아시아 국가의 네트워크 '진략' 분석
- c. 2년차 세부계획: 동아시아 국가-비국가 '행위자'의 복합 거버넌스 분석
- d. 3년차 세부계획: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의 성격 분석

###### 다. 전체 연구의 구성

##### 3. 결과 활용방안

- 가. 세계정치의 이론연구 활성화
- 나. 미래 국가전략 연구의 활성화
- 다. 수직적·수평적 연구네트워크의 구축
- 라. 연구작업의 학계 홍보 및 출간

##### 4. 기타사항: 현장밀착형 자료축적을 위한 출장계획

##### 5. 참고문헌

#### II. 대표업적: 3편 첨부

# I. 연구계획

##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세계정치의 경험적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개발과 실천전략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국제정치학적 시도이다. 동아시아 세계정치를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무엇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까? 최근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정치학적 난제들을 풀어나갈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북한의 핵개발 시도나 ‘6자회담’의 진로에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성격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와중에 발생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미래전략의 모색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 국제경제(무역, 금융, 생산), 에너지, 환경, IT, 문화-커뮤니케이션, 인권 등의 분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계를 넘나드는 비(非)국가 행위자들의 활동이나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 그리고 소위 동아시아 공동체 모색의 논의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상의 질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공통점은 모두가 단순히 동아시아 국가 행위자들의 차원이나 그들이 형성하는 단편적인 양자관계와 그 합(合)이라는 맥락에서는 풀기 어려운 난제라는 데 있다. 이들 현상은 일견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나 그들의 상호관계라는 맥락에서 관찰되지만,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들이 놓여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살펴보아야 하는 성격의 것들이다. 네트워크 이론의 용어를 빌자면, 단순히 ‘노드(node)’나 ‘링크(link)’가 아닌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아야 하는 문제들이다. 최근 지구화와 정보혁명이 진전되고 다양한 국가간 또는 초국적(transnational)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동아시아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의 구조와 동학에 대한 네트워크 이론의 연구 성과를 국제정치학의 분야로 끌어들이려는 본격적인 시도를 펼치고자 한다.

기존의 국제정치학은 말 그대로 국제정치(國際政治, inter-national politics), 즉 ‘국가라는 노드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치’를 탐구해 왔다.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국제정치학은 기본적으로 ‘노드 기반 이론’이다. 그런데 최근 현실의 변화는 이렇게 국가를 주요 노드로 설정하고 그들 간의 링크에만 주목하는 평면적 발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가 노드의 안과 밖에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행위자의 존재 형태 자체도 네트워크를 닮는 방향으로 변환을 겪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온 ‘국제정치’라기보다는 ‘네트워크 세계정치,’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네트워크들 간에 벌어지는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기존의 국제정치학이 바탕에 깔고 있었던 ‘노드의 발상’을 넘어서 변환을 겪고 있는 세계정치를 입체적으로 포착하려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발상’이다.

사실 국제정치학계에서 세계정치의 변환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에 제기된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이래로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상호의존, 국민국가의 쇠퇴, 지구화, 정보혁명, 제국,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 민주화, 탈근대 등등의 개념을 제기하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국내외 학계의 일

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도도 바로 이렇게 오래된 국제정치학적 고민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도입을 단순한 또 하나의 유행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사실 국제정치학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복잡계 내지는 네트워크 이론의 물결에 가장 늦게 올라탄 분과이다. 그러나 지난 2-3년 동안은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부상을 예견케 할 정도로 네트워크의 이론과 개념 및 그 적용에 대한 해외 학계의 연구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 고무적이다(Hafner-Burton, Kahler, and Montgomery, 2009; Kahler ed. 2009; Maoz, forthcoming).

본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의 광범위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 성과와 글로벌 차원의 세계정치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동아시아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시도를 단순한 외래이론의 수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본 연구팀을 중심으로 지난 5-6년 동안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연구를 벌여온 국내연구의 자생적 성장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 학계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복잡계 국제정치’(민병원, 2005), ‘네트워크 지식국가’(하영선·김상배 편 2006; 하영선 편, 2006), ‘변환의 세계정치’(하영선·남궁곤 편, 2007), ‘동아시아 네트워크’(손열 편, 2007; 하영선 편, 2008), ‘동아시아 지식질서’(김상배 외, 2008), ‘지식네트워크’(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2008), ‘네트워크 권력’(김상배 편, 2009), ‘네트워크 세계정치’(하영선·김상배 편, 근간) 등을 화두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국내 연구의 수준은 논의의 시발점이나 고민의 깊이라는 점에 있어서 해외 연구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동아시아라는 구체적인 맥락에 적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해외 학자들이 다룰 수 없는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국내의 네트워크 세계정치 연구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유추’의 차원에서 원용하던 초기의 시도로부터 좀 더 본격적인 ‘분석이론’의 개발과 구체적인 ‘경험적 사례’의 분석을 시도하는 전환을 모색해 왔다. 향후 본 연구팀은 이론적 구도의 정비와 핵심사례의 발굴 및 분석 작업에서 시작하여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시각을 동아시아 지역전반과 세계정치 전반으로 확대시키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팀의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 연구’는 10년 장기사업을 지향하는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ocial Science Korea)>의 사업목적과 크게 부합한다.

## 2. 연구방법 및 내용

### 가. 연구의 내용

#### a. 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원용

본 연구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수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생물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네트워크의 물리적·사회적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원용할 것이다(Newman, Barabási and Watts, eds, 2006). 이들 최근 네트워크 연구의 성과들을 원용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떠올리는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이들 연구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주위에서 발견되는 관계(즉 링크)의 존재여부로서의 단순한 의미의 네트워크 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의 기여는 다양한 이론과 분석개념 및 방법론을 활용하여 여태까지는 우리가 막연히 짐작만 해왔었던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원용하여 동아시아 세계정치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을 펼치고자 한다.

이렇게 동아시아 세계정치의 네트워크 구조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도입함은 물론이고 좀 더 분석적인 시각에서 네트워크의 특징을 드러내 줄 개념들을 적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 자원권력과 위치권력, 좁은 세상 네트워크나 척도 무관(scale-free) 네트워크, 여섯 단계의 분리, 소위 ‘긴꼬리(long-tail)’의 법칙으로 알려진 멱함수의 법칙, 군집화, 불균등 분포현상, 프랙탈과 자기조직화, 행위자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 ABM), 연결(degree)과 근접(closeness) 및 매개(betweenness)의 차원에서 파악된 중심성(centrality), 개방성과 호환성 및 유연성으로 대변되는 네트워크의 표준설정 메커니즘, 물리적 네트워크와 사회 네트워크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성적 논의 등을 동아시아 세계정치의 연구주제에 적용하는 시도를 벌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제정치학 분야 새로운 분석이론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의 시각은 행위자 차원에 주로 고착되어 있던 국제정치의 이론화 발상을 넘어서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학의 오랜 이론적 숙제였던 행위자(agent)와 구조(structure)를 동시에 담아내는 이론의 개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방법론이라는 차원에서도 사회연결망분석(SNA)의 도입은 세계정치의 네트워크 구조를 소시오그램(sociogram)의 형태로 가시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그림-1>의 실상도(實像圖)를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이 주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네트워크 시각의 도입은 한반도의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데에도 그 힌트를 준다. 전통적인 행위자 중심의 자원 기반 국제정치에서는 항상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한반도이지만 네트워크라고 하는 좀 더 유동적인 정치환경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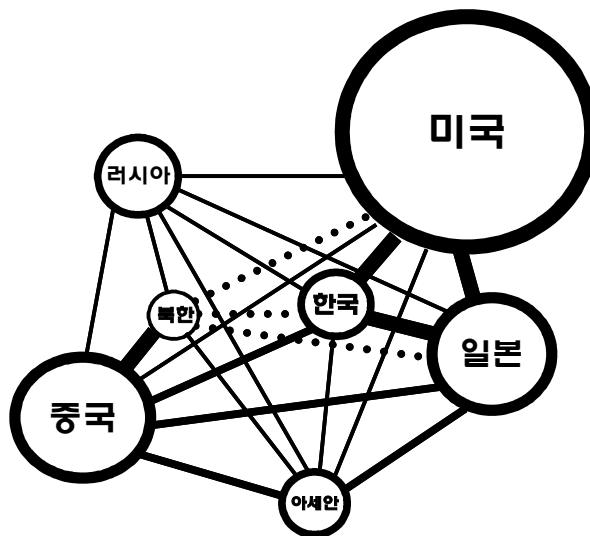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팀은 지난 1-2년 동안 네트워크의 시각을 원용함으로써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이 설정한 분석틀을 비판하고 수정하는 이론적·개념적 시도를 벌여왔다. 특히 네트워크 이론을 도입하는 작업의 장점을 국제정치학 연구대중에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내건 이론적 논제들과 대비하는 작업을 펼쳤다. 이러한 시도의 핵심은 노드 기반 이론의 발상에 머물고 있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기본가정, 즉 권력추구 가정, 국가중심 가정, 무정부질서 가정을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수정하여 향후 네트워크 세계정치에 대한 논의의 플랫폼으로 삼는 일이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세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연구주제 발굴 및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시키려고 한다.

-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의 가정:** 현실주의가 염두에 두고 있는 권력은 주로 국제정치의 핵심 노드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 특히 부국강병을 보장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보유라는 관점에서 파악된다. 이에 비해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에서 주목하는 권력은 노드로서의 국가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서 비롯되는 권력이 아니라 노드와 노드들이 맺는 관계의 구조라는 맥락에서 생성되는 소위 ‘네트워크 권력’이다.
-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의 가정:**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는 주권원칙과 영토성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하는 국민국가를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행위자로서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은, 국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국민국가가 그 경계의 안과 밖으로 변환되면서, 그 역할과 형태가 새로이 부상하는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조정되는 모습의 국가, 즉 ‘네트워크 국가’에 주목한다.

- **네트워크아키(networkarchy)의 가정:** 국민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상정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보는 국제체제는 개별국가의 상위에 국내정부에 상응하는 권위체가 없는 무정부질서(anarchy)이다. 그러나 안팎으로 네트워크 형태로 변환하는 네트워크 국가들이 구성하는 세계질서를 단순한 무정부질서로 상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은 무정부질서와 위계질서(hierarchy)의 중간 형태의 세계질서인 네트워크아키 즉 ‘네트워크 질서’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가정의 제안과 검증의 시도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 세계정치의 현실을 반영하는 좀 더 입체적인 주제개발을 모색할 것이다.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주제개발에서 특별히 염두에 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이론의 도입이 행위자-구조의 상호작용을 복합적으로 파악케 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반복컨대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도입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행위자와 구조 차원의 이론이 분리된 채로 존재한다면 부질없는 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향후 1단계 연구의 1-2-3년차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탐색할 분석주제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설정되었다.

<그림-1> 동아시아 세력망(勢力網, network of power)의 가상도



#### b. 네트워크 권력론의 동아시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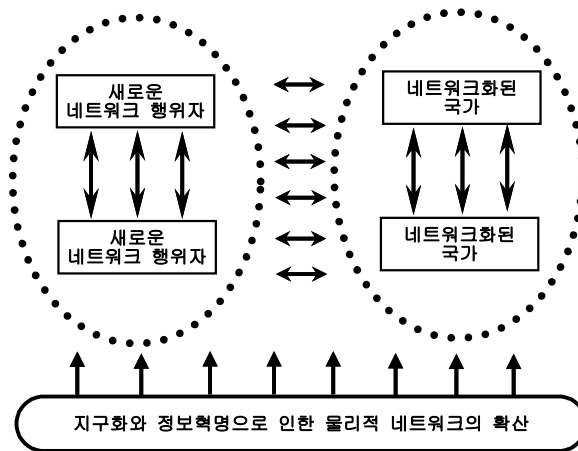
1단계-1년차의 연구는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국가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전략과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되는 권력구조의 분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네트워크 권력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주변의 네 나라는 전통적인 자원권력의 잣대로 본 4강(強)이라기보다는 네 개의 네트워크 국가라는 의미에서 본 ‘4망(網)’이다. 본 연구는 군사·안보, 정치경제, 에너지·환경, 기술·지식, 문화·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에서 네트워크 권력게임을 벌이는 이들 4망의 국가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이러한 와중에서 생성되는 동아시아의 ‘세력망(勢力網, network of power)’으로부터 분석주제를 발굴할 것이다. 동아시아 세력망의 구조와 동학을 밝히는 논의는 전통적인 의미의 4강(強)이 형성하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논의와는 다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그림-1>과 같이 ‘자원권력’과 ‘위치권력’의 관점을 모두 반영한 가상도(假像圖)를 각 분야별로 사회연결망분석(SNA)을 사용하여 실상도(實像圖)를 그려보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세력망의 구

도 속에서 한반도가 추구할 네트워크 국가전략의 방향에 대한 논의로 연결될 것이다.

**c. 네트워크 국가론의 동아시아 적용**

1단계-2년차의 연구는 네트워크 국가론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에서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세계정치의 동학과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변환의 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차적으로 최근 동아시아의 군사·안보, 정치경제, 에너지·환경, 기술·지식, 문화·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에서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궁극적인 초점은 이러한 네트워크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국가(또는 국가들의 네트워크)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치, 즉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의 분석에 두어질 것이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동아시아의 국가-비국가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복합 거버넌스(complex governance)에 대한 사례연구와 이론적 해석도 시도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국가모델이나 제도모델의 특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소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로 알려진 기존의 연구 성과를 원용할 예정이다.

<그림-2> 동아시아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의 동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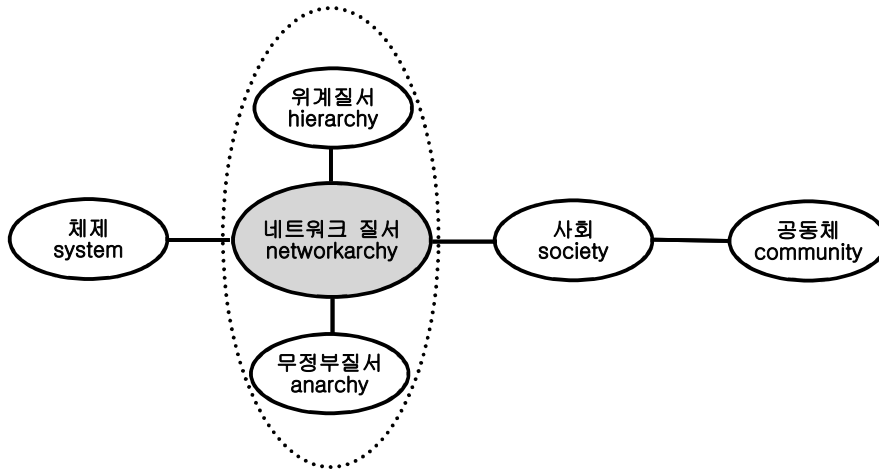


**d. 네트워크 질서론의 동아시아 적용**

1단계-3년차의 연구는 네트워크 질서론의 시각에서 네트워크 권력게임을 벌이는 국가/비국가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창출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성격을 분석할 것이다. 21세기의 동아시아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지역질서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상정하는 ‘무정부질서(anarchy)’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다고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단위들 간에 이익과 규범을 공유하는 ‘사회(society)’이거나, 아니면 단위들 간의 정체성까지도 중첩되는 ‘공동체(community)’라고 보기에에는 다소 이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국가들이 형성하는 동아시아 세계질서를 ‘복잡계로서의 체제’ 즉 ‘네트워크 질서(networkarchy)’로 이해하고 군사·안보, 정치경제, 에너지·환경, 기술·지식, 문화·커뮤니케이션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밝혀 볼 것이다.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성격을 밝히는 작업의 관건은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네트워크 질서의 양상이 동아시아 세계정치에서는 얼마나 독특한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가지고 출현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냉전적인 국제질서가 잔존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

에 여전히 배태되어 있는 전통질서나 최근 지구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탈근대 질서가 어떠한 양상으로 삼중으로 복합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림-3>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의 성격



## 나. 1단계 세부 연구계획

### a. 1단계 연구의 방법과 분담

1-2-3년차에 걸쳐서 진행될 1단계 연구는 계량연구를 수행할 공통모듈로서의 <트랙-1>, 이론적인 차원에서 분석이론을 개발하고 실천전략의 방향을 모색할 <트랙-2>, 그리고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핵심사례 분석을 수행할 <트랙-3>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그림-4> 참조).

- <트랙-1>은 본 연구의 공통모듈에 해당된다. 각 년차별로 진행되는 이론연구와 사례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발굴이나 사회연결망분석(SNA)의 수행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구는 일종의 연구 풀(pool)을 형성하는 형태로 공동으로 진행하여 각 연구자가 나누어 갖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트랙-1>의 연구 풀의 구성은 연구책임자가 주관하고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참여로 구성된다. <트랙-1>은 별개의 연구논문의 집필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트랙-3>의 연구에 스며드는 공통모듈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트랙-2>에서는 일반이론으로서의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현실을 반영하는 이론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이론개발의 과정은 자연과학이나 여타 사회과학 분야와의 학제간 교류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론개발에는 실천전략의 방향 모색이라는 문제의식이 적극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트랙-2>가 1-2-3년차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주제는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세 가지 분석주제와 맥을 같이 한다. <트랙-2>의 연구는 연구책임자가 주관하고 공동연구원의 참여로 진행될 것인데, 그 결과는 주로 <트랙-3>의 개별 논문의 분석틀로 활용될 것이다.
- <트랙-3>에서는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영역을 군사·안보, 정치경제, 에너지·환경, 기술·지식, 문화·커뮤니케이션의 다섯 분야로 나누어 핵심사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각 년차별로 앞서 <트랙-2>의 이론적 프레임에 맞는 경험적 분석을 행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분석의 과정에서 비교의 시각이나 역사의 시각의 적극적으로 동원될 것이며, 사례의 성격에 따라서 사회연결망분석

(SNA)이 전면적으로 시도될 것이다. <트랙-3>에서 공동연구원-갑이 군사·안보, 공동연구원-을 이 정치경제, 공동연구원-병이 에너지·환경, 공동연구원-정이 기술·지식, 연구책임자자가 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각각 담당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와 분석들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1단계 1-2-3년차의 세부연구를 군사·안보, 정치경제, 에너지·환경, 기술·지식, 문화·커뮤니케이션의 다섯 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이상의 다섯 분야를 선별한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정치로부터 네트워크 세계정치로의 변환(transformation)’이 보여주는 각 분야별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어, 여전히 ‘국제정치’의 논리가 잔존하고 있는 군사·안보 분야에 비해서, 정치경제나 에너지·환경의 분야는 전통적인 국제정치로부터 네트워크 세계정치로의 이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기술·지식과 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는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논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발견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별 비교연구를 통해서 네트워크 세계정치가 동아시아에서 발현되는 과정이 ‘획일적 과정’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복합적 과정’임을 밝히게 될 것이다.

#### b. 1년차 세부계획: 동아시아 국가의 네트워크 ‘전략’ 분석

**[군사·안보]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안보 네트워크 전략: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에서 본 북핵 6자회담의 세력망 분석**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군사안보에 있어서 핵심적 주제 중의 하나인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네트워크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북핵 6자회담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이해와 전략을 반영하는 독특한 협력과 경쟁의 네트워크 모습을 보여준다. 6자회담은 현실주의적 세력균형론이나 다자적 안보협력의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6자회담은 참여 국가가 담당하는 ‘네트워크커(networker)’나 ‘스위치(switcher)’ 등의 역할을 통해 구성된 국가 간 네트워크 내에서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참여국들의 복합적인 전략적 상호작용의 사례이다. 이는 동맹 네트워크와 군사협력(교류) 네트워크와 더불어 중층적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고 발휘되는 동아시아 지역 정치에서의 세력망(network of powers)의 모습을 포착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정치경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경쟁과 네트워크 전략** 이 연구는 정치경제 영역, 특히 무역 부문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네트워크 전략을 분석한다. 동아시아에는 북미나 유럽과 달리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경제를 모두 포괄하는 다자적인 무역레짐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다자주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양자 FTA를 체결해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동아시아 FTA에 미온적이던 기존의 태도에서 탈피하여 좀 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동류국가’ 간 ‘높은 수준’의 지역협정으로서 환태평양파트너십(TPP)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게 TPP는 미국식 표준을 공유하는 자유무역 네트워크로서 자신이 제외된 기존 동아시아 무역협정의 차별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국, 중국, 일본도 ASEAN 등을 상대로 FTA 경쟁을 벌여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동아시아 4개국의 경쟁적 FTA 정책을 네트워크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즉 동아시아 FTA의 확산은 국가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FTA 연결체를 만들어가는 현실주의적인 네트워크 전략의 산물이라는 가설적 주장을 경험적으로 증명한다.

**[에너지·환경]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보는 중국, 일본, 한국의 에너지안보 전략과 러시아의 대응전략**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에서 볼 때 이제 국가전략이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하는 다면적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국가전략의 네트워크 이론적 함의를 드러내 줄 이슈로 에너지안보 국가전략을 택하였다. 국가의 에너지안보는 국가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

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인도의 부상에 따른 수요의 급격한 증대가 세계에너지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으며, 세계 화석에너지 공급량의 제한된 성장은 이에 대한 국가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쟁이 동북아 수준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개괄하고, 특히 에너지안보를 향한 중·일·한국의 경쟁을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방 자원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 중, 일의 경쟁구도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국가전략 또한 네트워크 이론적 견지에서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각국의 국가수준에서 발간한 공식적 에너지전략 문건들과 유관 연구소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동시에 다양한 2차 자료들을 참고하여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안보 전략과 그 네트워크 이론적 상호작용을 과정추적 방식으로 해명해 볼 것이다.

**[기술·지식]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술지식 네트워크 전략: IT 클러스터의 분석** 21세기 기술과 지식은 군사력, 경제력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기술력, 지식력 그 자체가 목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21세기 문명표준 가운데 하나인 IT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각 국은 자국내 IT기업들의 집적지(Cluster)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들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선택해 왔다. 이 결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 일본의 쓰쿠바, 한국의 대덕 연구단지, 대만의 썬쑤연구단지 등이 형성되었다. 클러스터 내에서 자국 및 해외의 기업, 연구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술발전을 위한 경쟁 및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각 국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배경 및 발전과정이 다소 상이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각 국가내 IT 클러스터 내부와 각국 IT클러스터 간의 관계를 국가의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국가들의 네트워크 전략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네트워크의 형태나 밀도, 네트워크 내의 상호작용 패턴에서 유의미한 차이에 주목할 것이다.

**[문화·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외교와 소프트 파워 전략** 이 연구는 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네트워크 전략을 다룬다. 주로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시각에서 본 각국의 문화자원 확충정책이나 문화외교 또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추진 전략에 주목할 것이다. 군사안보나 정치경제와는 달리 비(非)제로섬(non zero-sum) 게임의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 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이지만, 최근 동아시아의 양상은 글로벌 세력으로서의 미국, 지역 세력으로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남북한이 치열하게 ‘매력경쟁’을 벌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아울러 이 글은 이러한 매력경쟁의 와중에 형성되는 소프트 파워의 ‘세력망’을 그려내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벌이는 목적은 다층적으로 형성되는 동아시아 문화 세력망에서 일종의 ‘스위처(switcher)’ 또는 ‘브로커(broker)’로서 한국의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c. 2년차 세부계획: 동아시아 국가-비국가 ‘행위자’의 복합 거버넌스 분석**

**[군사·안보] 동아시아 군사안보 네트워크의 복합 거버넌스: 국가-비국가 행위자의 상호작용** 이 연구는 여전히 국가 중심적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비국가 행위자의 네트워크 사례를 발굴하여 이들과 국가 행위자 네트워크의 상호 작용이 구성하는 복합 거버넌스가 동아시아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ARF, APT, EAS 등 정부 간 안보 네트워크와 더불어 (반)테러 네트워크, 방위산업의 국제적 분업 네트워크, NEACD 및 CSCAP 등의 민간 차원의 안보대화 네트워크, 그리고 각종 안보 관련 연구소의 네트워크 등은 이러한 복합 거버넌스의 구조를 이루며 그 자체로 동아시아 군사안보 영역에 새로운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비국가 행위자 네트워크의 복합 거버넌스의 이해는 향후 동아시아 세계정치의 방향을 전망하는 데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정치경제] 동아시아 금융감독 네트워크의 복합 거버넌스** 이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국가-비국가 행위자가 함께 빚어내는 네트워크 복합 거버넌스 사례로서 금융감독 협력을 분석한다. 동아시아의 금융감독은 정부, 금융회사, NGOs, 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다차원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하에서 양자통화 스왑이 체결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정보 교환과 위험요소 평가 및 공유의 장이 더욱 절실해졌다. 자야수리야(Jayasuriya)가 말한 동아시아의 ‘규제지역주의’(regulatory regionalism)의 필요성이 증대했고, 단순히 주권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간 협의체만으로는 역내 초국경 금융의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감독 거버넌스는 APEC, ASEAN+3 재무장관회의, 아태중앙은행협의체(EMEAP), ADB, 금융회사 등 공식·비공식 정부간협의체,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네트워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처럼 동아시아 금융에 관한 새로운 거버넌스 양식으로서 국가-비국가 행위자 복합 네트워크 사례를 고찰한다.

**[에너지·환경] 동북아 환경협력 네트워크의 형성: 황사 대응체제와 복합 거버넌스** 이 연구는 동북아의 환경협력체제의 사례로서 황사대응체제를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특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복합적 거버넌스의 형성을 네트워크론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동북아 황사문제는 여느 다른 환경 문제에서와 같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부문, 특히 시민단체나 전문가집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이것이 정부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기존의 황사대응체제의 한계에 따른 보완과 대응 방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네트워크 이론이 지니는 효용은 매우 크며,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자유주의적 상호의존론에 기초한 분석을 넘어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복합 거버넌스의 구축이란 측면에서 설명하는 개념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황사대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협력네트워크와 국가 간의 협력체제를 네트워크 이론적 견지에서 분석하여 보고, 구체적인 황사대응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그 특성과 한계를 드러내도록 할 것이다.

**[기술·지식] 동아시아 기술지식 복합 거버넌스: 원자력기술 협력의 사례** 원자력기술은 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로의 발전 가능성으로 인해 기술의 확산과 통제가 동시에 진행된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원자력에 대한 의존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기술개발을 위한 경쟁과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IAEA나 NPT, 핵안보정상회의 등과 같은 국제기구 및 국가간 네트워크, 다양한 반핵운동 NGO들이 핵확산 금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연구는 원자력기술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가, 국제기구, 관련기업, NGO 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동아시아 원자력기술 복합 거버넌스를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기술지식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국가간 경쟁의 구도로 단순하게 이해되던 기술지식의 세계정치에 대한 이해를 넘어, 현재 형성되고 있는 국가, 기업, NGO,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경쟁과 협력으로 촘촘하게 얽힌 역동적인 현실을 그려내고자 한다.

**[문화·커뮤니케이션] 동아시아 민간 문화네트워크와 문화국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는 특히 비국가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민간 문화네트워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오래 전부터 예술 분야의 민간단체의 교류, 대학과 연구소 등의 지식인 교류, 관광

이나 스포츠 교류 등이 있어 왔다. 최근에는 문화산업 분야의 교류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한 사회문화적 네트워킹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한류(韓流)에 대한 논의로 주목 받고 있는 이러한 동아시아 민간 문화네트워크의 부상은 동아시아 문화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민간 행위자의 부상에 대해서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들은 어떠한 대응을 벌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가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북미나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가 행위자가 주도하여 민간 행위자들을 엮어내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수행하는 동아시아의 문화국가 모델이다.

**d. 3년차 세부계획: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의 성격 분석**

**[군사·안보] 동아시아 군사안보 분야의 네트워크 질서: 유럽 경험과의 비교** 동아시아의 군사안보 분야는 다양한 행위자와 거버넌스 양식이 결합된 독특한 네트워크 질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의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도화의 정도가 낮은 동아시아 군사안보 네트워크 질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연 근대 군사국가의 모습을 얼마나 탈피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유럽의 경우는 냉전 이후 현실주의의 비판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OSCE, NATO 등의 군사 네트워크의 안정화 및 확대를 통해 안보 이익의 충돌을 조정하여 EU라는 종합적인 지역 네트워크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이르렀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안보 네트워크 공동체의 출현이 가능한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군사안보 네트워크의 특징(행위자, 권력, 거버넌스)을 전통,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는 삼층 네트워크 질서로 파악하고 유럽의 네트워크 질서와 비교 분석하여 향후 동아시아 군사안보의 전망을 시도한다.

**[정치경제] 해외직접투자 분야의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해외직접투자(FDI)를 규율하는 제도적 형식을 ‘네트워크 질서’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발판삼아 자본수입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역내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인 협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협정이 존재하는 북미(NAFTA)와 유럽(EU)과는 다른 현상이다. 그렇다고 외국인 투자보호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무정부적 모습도 아니다. 왜냐하면 양자투자협정(BIT) 네트워크가 다자적인 지역투자협정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인 지역투자협정의 부재 속에서 자국 기업의 투자보호라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BITs가 일종의 네트워크 ‘질서’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역내 BIT네트워크가 하나의 질서로서 인식되기 위해서는 BIT간 유사성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BITs의 내용을 비교하여 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네트워크 질서 존재여부를 조명한다.

**[에너지·환경]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제 형성의 네트워크 이론적 이해**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드러나는 네트워크 질서의 초기 형성을 동북아에서 드러내기 위해 이 연구는 역내 에너지협력체제의 형성과 관련된 기존 접근법의 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네트워크 이론적인 접근법으로 동북아 에너지협력 질서에 대한 이해를 제시해 볼 것이다. 동북아 에너지 수급망 구축 관련 사업을 두고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고 각축하는 단계를 지나 동북아의 지역적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해 강화되고 있는 국가 간, 전문가그룹 간, 기업 간 협력네트워크의 복합적 구성과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아키의 실체를 드러내 보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 발생과 인식의 공유 그리고 상호의견의 교환 그리고 정책화 및 조율 등 일련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가지는 질서형성의 측면에 대한 이해는 급변하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네트워크 질서의 구성주의적 이해의 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동북아

각 수준(정부, 민간, 전문가그룹, 기업 등)에서 시도된 동북아 에너지협력 프로젝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 노력을 검토하여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네트워크 구성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기술·지식] 연구개발(R&D) 분야의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 EU와 동아시아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비교** 국가와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 증대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EU는 지역경제협력과 연계하여 지역내 기업과 국가들의 혁신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연구개발 협력 및 경쟁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개별 기업이나 국가 차원을 넘어선 지역혁신체제를 출현시키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아시아에서 위로부터의 국가 및 기업들간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밑으로부터 시장논리에 의해 진행되어온 동아시아경제 통합은 지역내 기업간 초국적 생산네트워크 안에서 자발적인 연구개발 협력 및 경쟁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왔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과 방법론을 원용하여 EU와 동아시아 지역혁신체제를 비교하면서 동아시아 연구개발 네트워크 질서의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설명한다.

**[문화·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질서론의 시각에서 보는 동아시아 문화질서의 성격: 글로벌문화, 문화민족주의, 디지털문화의 복잡성** 19세기 말까지 소위 천하질서(天下秩序)로 대변되는 중국 주도의 문화질서를 경험했던 동아시아 지역은 20세기 초반의 식민지의 시대를 거치고 20세기 후반의 지구화 시대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소위 글로벌문화(global culture)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과 정보혁명의 진전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복합질서로서의 네트워크질서의 태동을 예견케 한다.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화 시대의 ‘문화제국’을 연상케 하는 질서가 잔존하는 가운데, 중국을 통해서 발현되는 문화민족주의의 경향과 한국과 일본의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탈근대 디지털 정체성이 출현하고 있음은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복잡성을 엿보게 하는 사례이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아키(networkarchy)’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문화질서의 복합적 성격을 분석하고 이것이 유럽과 같은 여타 지역과 대비되는 특징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다.

## 다. 전체 연구의 구성

이상의 밝힌 1단계 1-2-3년차의 연구에서 행할 계량연구와 이론개발 및 핵심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2단계(3개년)와 3단계(4개년)에는 중형 및 대형과제의 규모에 맞추어 연구의체를 확대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1단계에서 본 연구가 취한 방법은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이론과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1단계의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차원에만 평면적으로 시각을 고정시킨 것은 아니고 글로벌-동아시아-한반도가 모두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동아시아의 주제들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단계의 중형과제와 3단계의 대형과제는 1단계의 소형과제에서 제시된 ‘압축 파일’과도 같은 핵심사례들의 겉포장을 점차적으로 뜯어내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가 핵심사례 연구였다면, 2단계는 논의의 범위를 동아시아 지역 전반으로 확장하고, 3단계는 논의의 범위를 세계정치 전반으로 확장의 세 단계의 방식을 취할 것이다.

<그림-4> 전체 연구의 구성

1단계 동아시아 의 핵심사례 에 초점	1년차	사회연결망 분석(SNA) 의 공동 수행 및 각 주제별 적용	분석이론 네트워크 권력론	사례분석				
				군사·안보	정치경제	에너지·환경	기술·지식	문화·소통
				동아시아 국가의 네트워크 '전략' 분석				
2단계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장 (3개년)	2년차		네트워크 국가론	동아시아 국가-비국가 '행위자'의 복합 거버넌스 분석				
	3년차		네트워크 질서론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의 성격 분석				
3단계 세계정치 전반으로 확장 (4개년)	글로벌 차원의 네트워크 세계정치 연구: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 3. 결과 활용방안

#### 가. 세계정치의 이론연구 활성화

이론연구의 차원에서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으로 시도되는 본 연구의 성공적 수행은 후속적인 이론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이론적 논의는 이러한 결핍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새로운 실험으로서, 학제적이고 통합적인 이론의 공유라는 관점에서도 학계에 대한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는 단순히 글로벌 차원에서 네트워크 세계정치를 탐색하는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동아시아 세계정치 연구의 이론적 탐색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후속연구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해석이나 동아시아에서 초국적 네트워크 행위자의 부상을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세계정치 부상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국가 차원의 경험연구에 치중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나. 미래 국가전략 연구의 활성화

실천전략 연구의 차원에서 본 연구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 특히 최근 동아시아 세계정치에서 최대 쟁점인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미래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기존의 노드 중심의 국가 간의 관계에 기초한 정부의 국가전략은 여러 측면에서의 새로운 네트워크 행위자의 부상과 기존 국가와의 관계에의 영향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네트워크 시대의 세계정치와 동아시아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미래 국가전략의 기초 연구로서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시대 한국의 향후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후속 정책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다. 수직적·수평적 연구네트워크의 구축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이론적, 정책적 차원의 기여 이외에도 사회과학의 세대를 아우르는 수직적 교육네트워크와 학문 분과를 넘나드는 수평적 연구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교육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과학의 학제적 성격을 강화하는데 공헌하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가 구축하는 수직적 교육네트워크는 석사 및 박사과정급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연구 어젠다의 세대 간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미래 연구인력의 지적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사업은 지금까지 대학원생의 참여가 단순히 연구보조원 수준에 머물렀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 세대 간 학문적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뿐 아니라 네트워크 세계정치에 관심을 갖는 전국 소재 대학원생 일반을 대상으로 한 가칭 ‘월례 네트워크 포럼’(MFN, Monthly Forum on Networks)을 개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월례포럼을 통해 축적된 네트워크 세계정치에 관한 지식에 현장감을 불어넣기 위해 1단계 3년차에는 박사수료생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세계정치 견문팀’을 만들어 외국 정부기관이나 대학 및 연구소, 다국적 기업 등에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는 수평적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문 분과 간 대화를 촉진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네트워크정치는 기본적으로 행위자와 영역이 다층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는 복합적 현상이다. 따라서 사회과학 내 사회학, 경제학, 언론학 등은 물론, 경영학, 자연과학, 공학과 같은 다면적인 연구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본 사업은 ‘월례 네트워크 자문회의’를 활용하여 타 학문분과의 전문가를 초빙, 학제적 연구를 본격화할 것이다. 또한 동서문제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한국동남아학회, 한국아메리카학회 등 국내외 동아시아 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 등과 분기별 ‘동아시아 연구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여 본 연구사업의 질적인 향상과 파급효과의 최대화를 도모할 것이다.

이 연구사업은 단순히 참여 학자들이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세계정치를 탐구하는데 머물지 않고 연구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자료, 데이터와 지식을 일반 학생 및 대중과 공유할 것이다. 이로써 후속 연구를 자극하고 일반 대중에게도 사회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소개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관(연구소)에 연계된 혹은 독립된 웹사이트, 가칭 ‘네파아’(NetPEA, Network Politics of East Asia)를 개설, 동아시아 및 세계의 네트워크 정치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디오언스 친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웹사이트의 유명무실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개설-등록-포워딩-유지관리 등에 정통한 운영자를 둘 예정이다.

## 라. 연구작업의 학계 홍보 및 출간

이상의 이론연구와 정책연구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의 성과들은 연구논문의 형태로 학계에 소개하여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을 유발할 것이다. 매년 연구의 결과물은 워킹페이퍼나 연구재단의 최종보고서 형태로 생산될 예정이며, 이 중에서 독창성과 완성도의 면에서 학계의 홍보가 필요한 논문을 엄선하여 국내외 유수의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1단계 1-2-3년차의 연구물들을 종합하여 필요할 경우 선별하여 단행본의 형태로 묶을 예정이다.

## 4. 기타사항: 현장밀착형 자료축적을 위한 출장계획

본 연구는 네트워크 시각에서 동아시아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군사·안보, 정치경제, 에너지·환경, 기술·지식, 문화·커뮤니케이션)에서 주변국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세안) 및 비국가 행위자(국제기구, NGOs, 다국적기업)의 네트워크 전략과 새로운 네트워크 행위자의 부상을 검토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결과와 문서에 관한 기초적인 분석에 더하여 현실 밀착형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각 국가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연구소 및 기업을 방문하여 그들의 네트워크 전략과 새로운 행위자의 부상을 살펴보고, 이들이 앞으로 국제정치에 미칠 영향과 한국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정부부처, 연구소, 기업 및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앞서 언급된 차세대 연구인력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도 동아시아 내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아래와 같이 각 년차별 중심주제와 조응을 이루도록 추진될 것이다.

- **1년차: 동아시아 국가의 정부관리 인터뷰:** 본 연구는 1년차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네트워크전략을 탐색한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거나 정책 아이디어를 공급하는 정부관료들을 찾아 기존의 문헌분석을 통해서 밝힐 수 없었던 모습들을 포착해낼 것이다. 예를 들어 6자회담은 일종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중국 정부, 동아시아 FTA 경쟁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안보는 러시아 에너지 관련 부처, 기술지식 네트워크는 각국 IT클러스터 관련 정책부처, 문화·커뮤니케이션은 각국의 공공외교 담당부처의 정확한 의도를 읽어내는 게 그리고 연구의 열쇠가 될 것이다.
- **2년차: 동아시아 비국가 행위자 상호작용 현장조사:** 2년차의 연구주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비국가 행위자, NGOs, 다국적 기업 등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연구자는 해당 연구주제에 연관된 비국가 행위자, 예를 들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ASEAN, 각국 중앙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다국적기업(e.g. HSBC, 가스프롬), 환경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을 방문하여 이들이 국가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어떤 전략과 능력에 기초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왔는지 조사할 것이다.
- **3년차: 동아시아 지역질서 연구의 대학 및 연구소의 탐방세미나 및 인터뷰:** 3년차의 연구주제는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질서의 성격을 연구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대학과 연구소의 관련 전문가들과 본 연구팀의 성과를 놓고 학문적 토론과 의견교환을 하는 데 관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팀은 주변 국가들의 우수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을 만나 탐방세미나와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나 브루킹스연구소, 러시아의 Pacific Geographic Institute, 중국의 국제관계연구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의거하여 본 연구팀이 각 분야별로 출장을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대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군사안보:** 미국의 Rand Institute, 워싱턴 DC의 Brookings 또는 Heritage Foundation. 중국 상해의 국제문제연구소. 싱가포르에 있는 ISEAS(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등.
- **정치경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중국의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필리핀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 **에너지·환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및 하바롭스크의 Pacific Geographical Institute, 모스크바의 IMEMO RAS, 일본의 Energy Economic Research Institute, 미국의 Asia Center 등
- **기술·지식:** 중국 중관촌의 다국적 기업 탐 및 칭화대학의 기술네트워크 연구소, 일본 쓰쿠바 연구 단지의 탐방 및 쓰쿠바 대학의 IT클러스터 클러스터, 미국 실리콘 벨리의 기업탐방 등
- **문화·커뮤니케이션:** 미국 국무부의 공공외교 담당 부처, 미국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일본의 Center for Global Communication(GLOCOM) 등

이상의 출장계획은 개별 연구자별로 진행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하위팀 내지는 전체팀을 구성하여 탐방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할 것이다.

## 5. 참고문헌

cf. 분량의 제한 규정으로 인해 최소한으로 꼭 인용이 필요한 문헌만을 선별하여 발췌함

- Brooks, Stephen G. 2005. *Producing Security: Multinational Corporations, Globalization, and the Changing Calculus of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verley, Jonathan D. 2007. "United States Hegemony and the New Economics of Defense." *Security Studies* 16(4): 598–614.
- Chasek, Pamela S., David Downie, and Janet W. Brown. 2006.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New York: Westview.
- Chong, Alan. 2007. *Foreign Policy in Global Information Space: Acturalizing Soft Power*. New York: Palgrave.
- Elkins, Zachary, Andrew T. Guzman, and Beth Simmons. 2006. Competing for Capital: The Diffusion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1960–2000. *International Organization* 60(4): 811–846.
- Giddens, Anthony. 2009. *Polit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Polity Press.
- Grewal, David Singh. 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fner–Burton, Emilie M., Miles Kahler, and Alexander Montgomery. 2009. "Network Analysi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3(3), pp.559–592.
- Houde, Marie–France and Katia Yannaca–Small. 2004.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Paris: OECD.
- Kahler, Miles. ed. 2009.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Klare, Michael T. 2008. *Rising Powers, Shrinking Planet: The New Geopolitics of Energ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 Kurlantzick, Joshua. 2007. *Charm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M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Len, Christopher and Alvin Chew. eds. 2009. *Energy and Security Cooperation in Asia: Challenges and Prospects*. Stokholm–Nacka: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 Maoz, Zeev. forthcoming. *Networks of Nations: The Evolution, Structure, and Effects of*

- International Net-works, 1816-200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ltke, Konrad. 2000. *An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Issues of Sustainability*. Winnipeg, Canada: IISD.
- Newman, Mark, Albert-László Barabási, and Duncan J. Watts. eds. 2006.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Network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ye, Jr., Joseph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Ó Riain, Seán. 2004. *The Politics of High-Tech Growth: Developmental Network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xenian, AnnaLee. 1994.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Harvard University Press.
- Suj, J.J., Peter J. Katzenstein, and Allen Carlson. eds. 2004.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Identity, Power, and Efficien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Tow, William T. ed. 2009. *Security Politics in the Asia-Pacific: A Regional-Global Nexu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CTAD. 1999. *Lessons from The MAI*. New York and Geneva: UNCTAD.
- Wesley, Michael. ed. 2007. *Energy Security in Asia*. New York: Routledge.
- Yasushi, Watanabe and David L. McConnell, eds. 2008. *Soft Power Superpowers: Cultural and National Asset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rmonk, NY: M.E. Sharpe.
- Young, Stephen and Ana Teresa Tavares. 2004. Multilateral Rules on FDI: Do We Need Them? Will We Get Them? A Developing Country Perspective. *Transnational Corporations* 13(1): 1-29.

- 김상배. 2007.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세계정치』 28(1): 190-233.
- 김상배. 외. 2008.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 김상배. 편. 2009.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한울.
- 민병원. 2005.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삼성경제연구소.
- 박동 외. 2004. 『세계의 지역혁신체제』 . 한울아카데미
- 박한규. 2000. 동아시아 원자력협력체 구상과 한국,” 『국제정치논총』 제40집, 제4호.
- 손열. 편. 2007.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 컨센서스』 지식마당.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2008.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세계정치> 29(1), 논형.
- 하영선. 편. 2006.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동아시아연구원.
- 하영선. 편. 2008.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 하영선·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 하영선·김상배 편. 근간. 『네트워크 세계정치: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주는 함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하영선·남궁곤 편. 2007.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 II. 대표업적

신청과제 연구참여 구분	연구책임자 ( <input type="radio"/> ) 일반공동연구원 ( <input type="checkbox"/> )	요약문 번호	1-책임
※ 일반공동연구원의 경우에는 갑, 을, 병 등으로 표시			
연구업적 요약문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서		
업적 구분	저서( <input type="checkbox"/> )   역서( <input type="checkbox"/> )   학술지( <input type="radio"/> )   외국특허( <input type="checkbox"/> )		
역 할	연구책임자( <input type="radio"/> ), 일반공동연구원( <input type="checkbox"/> )		
연구 참여자수	1명( <input type="radio"/> )   2명( <input type="checkbox"/> )   3명( <input type="checkbox"/> )   4명( <input type="checkbox"/> )   5명이상( <input type="checkbox"/> )		
<b>■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b>			
<p>글자 그대로 국제정치학은 ‘국(國, nation) 사이(際, inter)의 정치(政治, politics)’, 즉 국제정치(國際政治, international politics)를 주로 탐구하였다. 실제로 기존의 국제정치 연구는 주요 ‘행위자’로서 국민국가(nation-state) 간의 양자 또는 다자 ‘관계’를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런데 최근 현실의 변화는 이렇게 국가를 주요 ‘노드(node)’로 설정하고 그들 간의 ‘링크(link)’에 주목하는 평면적 발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국가 노드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초국가 네트워크 형태의 활동이 새롭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노드 자체도 그 안과 밖으로 네트워크화되는 변모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전통적인 국제정치와 새로운 세계정치가 서로 경합을 벌이는 ‘네트워크 간의 정치’, 즉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이론’을 국제정치학의 분야에 원용하여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Network Theory of World Politics, NTWP)’을 모색하였다.</p>			

신청과제 연구참여 구분	연구책임자 ( ) 일반공동연구원 ( o )	요약문 번호	2-병
※ 일반공동연구원의 경우에는 갑, 을, 병 등으로 표시			
<b>연구업적 요약문</b>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러시아의 네트워크 국가전략: 푸틴시기 에너지수송망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업적 구분	저서( )   역서( )   학술지( o )   외국특허( )		
역 할	연구책임자( o ), 일반공동연구원( )		
연구 참여자수	1명( o )   2명( )   3명( )   4명( )   5명이상( )		
<b>■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b>  <p>이 글은 러시아의 에너지수송망 구축 정책에 드러난 러시아의 국민국가 중심의 네트워크 국가전략의 내용과 그것이 기존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에 대하여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시도로서, 장기적 전략에 기초한 러시아 에너지외교가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利害)를 확대하려는 고려뿐만이 아니라 더 거시적인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고려에도 입각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이 대외적 영향력의 원천으로 활용됨에 있어 러시아의 국영기업의 에너지수송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와 그 신축사업 지니는 전략적 의도 및 그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러시아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의 네트워크의 특징을 러시아의 서(西)향성, 중(中)향성, 동(東)향성이라는 세 지전략적 지향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러시아 에너지수송망 구축이 가지는 네트워크이론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석유·가스수송 네트워크를 확충하려는 국가전략을 러시아의 위치권력의 핵심인 중앙성(centrality)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수송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결국 러시아의 에너지외교 전략은 에너지수송망의 구축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로서의 러시아가 행사하는 위치권력을 실현하여 전방위적 ‘스윙 생산자’나 에너지자원의 국제정치에 있어서 ‘브로커’로서의 네트워크 권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p>			

신청과제 연구참여 구분	연구책임자 ( ) 일반공동연구원 ( o )	요약문 번호	3-정
※ 일반공동연구원의 경우에는 갑, 을, 병 등으로 표시			
<b>연구업적 요약문</b>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초국적 반도체 생산네트워크와 동북아 경제협력		
업적 구분	저서( )   역서( )   학술지( o )   외국특허( )		
역 할	연구책임자( o ), 일반공동연구원( )		
연구 참여자수	1명( o )   2명( )   3명( )   4명( )   5명이상( )		
<b>■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b>  <p>본 논문은 반도체산업 초국적 네트워크의 틀에서 동북아 지역협력을 분석한다. 반도체 산업 초국적 네트워크의 지리적 범위가 미국, 유럽, 일본 중심에서 한국, 대만, 중국 등 아시아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및 비비메모리 가운데 설계의 일부, 공정과 패키징 부문에서 한국, 대만 기업들의 도약이 주목할 만하게 이루어져 왔다. 동북아 기업들의 위상 증대와 함께 기업들간의 노동분업에 기반한 연계가 심화되면서 1990년대 후반이후 동북아 국가들간 반도체산업내 무역이 증대되어 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노동분업구조의 불안정성, 초국적 생산 네트워크 안에서 각 국 기업들간의 치열한 상호경쟁, 동북아 기업들간의 협력에 대한 미국 입장의 불투명함 이라는 협력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우위를 누리고 있고 향후 산업발전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 연계에 기반한다는 공동의 이해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p>			